

# 그리움에서 출발하는 모든 이미지에

미술비평가 박영택, 식물성의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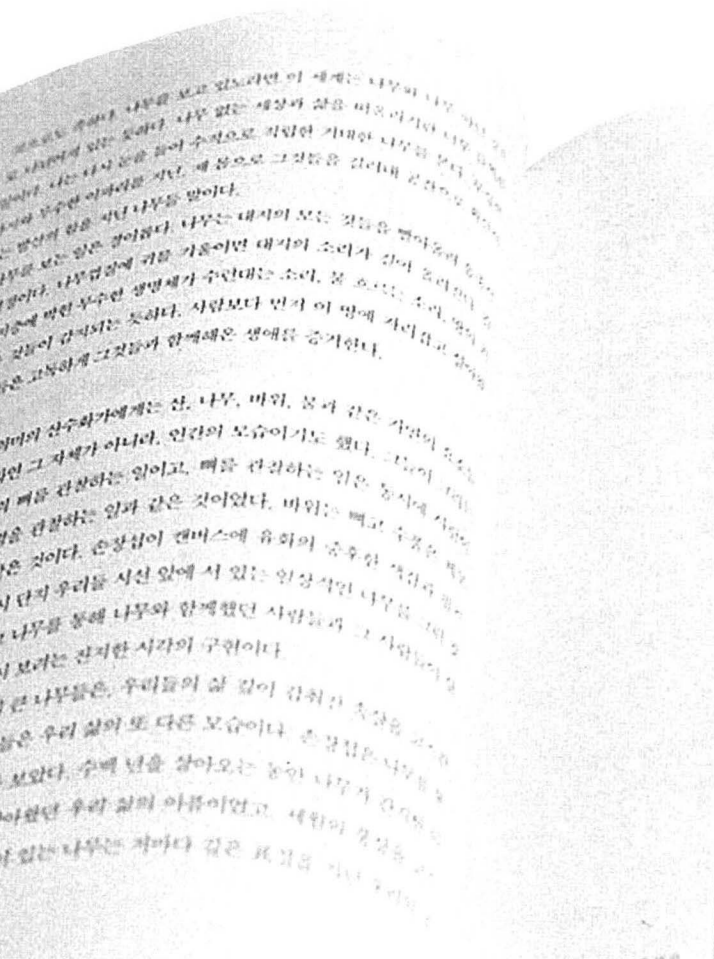
며칠째 날이 흐리고 간간이 비가 내린다. 은은한 빗소리의 리듬 속에서 잠잠히 눈을 감았다. 날씨도 그리 덥지 않아 일하기는 좋지만 한 해 농사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었다. 어서 빛나는 태양과 바람을 즐기는 숲과 들이 보고 싶다. 주홍빛 능소화가 하나 둘 똑똑 떨어지듯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하다. 그리 불행한 상황도 아니면서 끝없이 갈망하는 행복이 도대체 뭘까. 향시 창을 열어두며 여름 바람이 쏟아져 들어오길 바라듯 마음을 열어두고 기다리는 것들이 뭘가 한참 더듬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 《돈과 물질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는 영국 사람들의 지혜》와 연체료가 밀린 만화책들 그리고 《식물성의 사유》를 비닐 백에 넣었다. 미래는 알 수 없고, 책이라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생. 그나마 도서관이라는 게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비로소 생생하게 피어나는 곳, 내 삶을 느긋하게 이끄는 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를 맞고 자전거를 타는 재미도 괜찮았다. 문득 떠오른 이백의 시 한 수.

시원한 바닷물결이 눈앞에서 거칠게 일었다. 인생길 어렵긴 이백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 같은 인간으로서의 동질감, 동병상련의 감정을 일으키던 시. 시대를 초월한 교감으로 이백의 낙관주의가 나를 해 가까이 이끌어갔다.

## 시현림 시인

# 시선을 던지는...



금슬동이의 맑은 술은 한 말에 천 냥  
 옥쟁반의 진기한 안주는 만 냥  
 잔을 내려놓고 수저를 던지며 마시지 못하고  
 칼을 뽑아들고 사방을 보니 마음 망연해지네  
 황하를 건너려니 얼음이 가로막고  
 태항산을 오르려니 눈이 쌓여 있네  
 한가로이 푸른 냇물에 낚시 드리우니  
 홀연히 꿈 속에서 배를 타고 해 곁으로 갔네  
 인생길 어려워라, 인생길 어려워라  
 갈래길은 많은데 지금은 어디쯤인가?  
 큰 바람에 물결쳐도 때가 있을 것이니  
 그때는 구름에 뜻을 달고 창해를 건너리라

이런 멋진 시를 읽는 시간이 있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해는 우리 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인생길이 힘들지만은 않은 것이다. 인생길이 적적하면서도 그런대로 재미있는 건 길목마다 사람들을 만나 애걸 나누고 정을 나눌 수 있음이다. 살아가면서 내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는 자가 스승이니 그동안 살면서 내겐 그리 적지 않은 스승들이 있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투명하게 가슴을 적시던 사람이면 아이나 후배, 그 누구라도 스승인 것이다. 그들 중에 대학원 때 만난 스승, 내 책《희망의 누드》에서 얘기한 분이 생각났다.

“진실한 삶이 뭔지 한마디로 말하기 힘들다, 진실한 삶을 향해 가는 아름다운 발길이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

지난해에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은 참 복된 일이다. 함께 공부한 학생 모두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나보다 두 살이 어린 미술평론가이신데, 단지 수업의 재미와 열강 때문에 훌륭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이분은 미술과 사진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읽은 책과 영화 등을 전부 알려주셨다. 필요한 자료들은 언제든지 빌려주시고 자신이 가진 모두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은 소문이 나서, 지난 가을엔 청강생들이 수강등록 학생들보다 많았다. 휴학중이었지만 나도 청강생 중의 하나였다. 그 선생님이로 인해 타고생들과 참 따뜻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지금도 잔잔한 감동으로 남는다. 이런 스승을 만나기가 요즘 세상에 정말 힘들다.

이분은 최근 《식물성의 사유》를 내신 미술평론가 박영택 선생님이시다. 그 당시 나는 이분의 수업을 네 과목이나 수강했다. 그 수업들 중〈예술론〉과 내가 팀을 짰 워크숍〈동양미술사〉는 내 인생의 큰 수맥이 되었다. 사진에 대한 지식을 정리할 수 있었고, 창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도 되었다.

선생님은 수업 첫 시간에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깊이에의 강요》를 설명한 후 “어떤 성과나 욕망이 아니라, 죄의식이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두고두고 깊은 인상으로 남았다. 어떤 노 선사가 “근본적으로 살가죽 밑에 피가 흐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했듯이 자신의 양심을 소중히 하라는 깊은 뜻이리라.

또한 선생님은 이미지는 끝없이 소멸하는 것을 그리려는 거라면서 ‘그리다’란 말은 ‘그리워하다’란 말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 대목에서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그것에 유추하여 생각해 보면 어찌 그림만이 그리움에서 시작되는가 하고 내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결국 선생님의 말씀을 토대로 모든 이미지가 그리움에서 출발한 거라는 내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

박영택 선생님의 신간《식물성의 사유》도 인간이 꿈꾸고 그리워하는 이미지의 근본과 의미의 넓이와 깊이를 명민하게 다룬 에세이다. 이 책은 혼자 보기 아까워 사서 내 아우에게 한 권을 부쳤다. 이와 같은 책들이 바로 이백의 시귀 ‘옥쟁반의 진기한 안주’란 말처럼 인생의 진귀한 안주가 아닐까 싶다. 그 진귀한 안주와 자연이란 술과 벗하며 자본주의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내가 꿈꾸던 행복의 실체일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어느 새 도서관 창은 질푸른 어둠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깊고 진한 푸른색이 누군가를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보여졌다. ☞